

<구보따라 도쿄 걷기> 자료(2)

박태원 작품 읽기

-도쿄 유학 체험이 반영된 <나팔>, <반년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마끼세 아끼코 (牧瀬暁子)

구보학회 해외 지역 이사

(일본) 현대어학숙 강사

1. 박태원 도쿄 유학 체험

(1) 호세이(法政)대학 예과 제 2 부 학적부에 의하면, 박태원은 1930년 4월에 입학해서 1931년 3월에 1학년을 수료하지만, 1931년 6월에 수업료 미납으로 제적되었다. 성적표에 의하면 1학년은 급제했고, 영어와 국어(일본어), 한문 등의 어학 과목 성적이 우수했으며, 제 2 외국어로 불어를 선택했다. 그런데 2학년 성적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도일 시기는 1930년 3월로 추정된다. (전년 1929년 3월에 공립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음)

1930년 9월 2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片信>에는 “13일 朝에 東京에 도착하여서는 선생님 일어주시든 대로 本郷을 물색하여 보았으나” 숙소를 혼고(本郷)에 정하는 일은 반년간 연기했다고 써 있다. 그리고 말미에는 “九月一六日、夢甫”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13일이란 3월 13일로 추측된다. 아마 4월 입학 직전에 도일한 것 같다.

그런데 <片信>의 수신자가 종래에는 이광수로 추측되어 왔으나 박태원의 장남 박일영 선생에 의하면 노산 이은상이라고 한다(박일영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문학과 지성사, 2016). 또 숙소에 대해서는 “本郷이 帝大·一高生에게 위압당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피하고, 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가 살던 곳, 즉 다바타(田端)로 정했다고 하는데, 호세이대학 학적부에 실린 숙소는 다바타가 아니라 “東京府戸塚町(도쿄후 도즈카초)[현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改明館 (가이메이칸)”이었다.

(3) 귀국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박일영 선생의 기억에 따르면 옛날 친척에게서 들었던 일화로서 박태원이 “찬 바람이 났는데도 여름옷을 입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박일영, 위의 책). 그렇다면 1931년 3월에 1학년을 수료한 후 첫가을까지 도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체류 기간은 적어도 1년반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수필 <6월의 우울>(『중앙』 1934년 6월)에는 박태원이 창작을 위하여 낡은 대학노트에 쓴 ‘例(예)’로 “1931.7.26 오후 3시에 왕십리역 대합실 시계는 오전(혹은 오후)11시

5 분전을 가르킨 채 서 있음”이라고 써 있다. 다만 그 날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수필을 실제로 박태원이 1931년 7월에 이미 귀국해서 서울에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2. 박태원 작품에 그려진 1930년대 도쿄(발표순)

(1) <나팔> (『신생』 1931년 6월호. 필명 ‘夢甫’로 발표함)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神田橋(간다바시), 小川町(오가와마치)

[작품 개요] 5월의 대낮 거리를 행진하는 108명의 일본 병정들. 그들은 병정들을 자기들을 위한 군대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수라고 여기는 민중 앞에서 행진하기에 힘이 없다. ‘나’는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메이데이 데모’를 떠올린다. 그것은 굳세고 열띠고 자신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찬 행진이었다. 그것에 비해 병정들의 행진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모순되고 가엾은 행렬이었다. 병정들이 지나간 거리에 약하다 약한 나팔 소리가 잠깐 동안 남아 있었다.

「나팔」은 박태원이 도쿄 유학중에 발표한 작품이다. 그런데 일본 병정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는<小説家仇甫氏の一日>(『조선중앙일보』 1934년)에서 일본 군인들이 경성의 다방에 드나 들던 모습을 냉소적인 필치로 그렸지만, 193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됐을 때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

(2) <사흘 굶은 봄나팔> (『신동아』 1933년 4월호)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飛鳥山(아스카야마), 隅田川(스미다가와), 吾妻橋(아즈마바시),

雷門(가미나리몬), 仲見世(나카미세), 浅草(아사쿠사)公園, 象潟(기사카타)署

[작품 개요] 아사쿠사 공원에서 노숙하는 실업자 룬펜 성춘삼(成春三)은 아사쿠사 변화가의 화려한 소비문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틀째 굶주리면서 ‘봄나팔’을 쳐다본다. 어렸을 때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한끼도 굶기지 않았던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3월 3일, 자기 생일날에 어머니가 시루팥떡을 먹겠냐고 물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 생각나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 때 옆으로 다가온 주정꾼 하나가 춘삼에게 야키토리(닭꼬치구이)를 내밀어 주었는데, 그 주정꾼이 춘삼이 고개를 흔든 것을 거절의 표시로 착각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야키토리를 얻어먹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3) <半年間>(『동아일보』 1933.6.15~8.22), 삽화도 박태원이 그렸음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高圓寺(고엔지)驛, 新宿(신주쿠)驛, 大森入新井町(오모리

이리아라이마치), 駿河臺下(스루가다이 시타), 神保町(진보초), 水道橋(스이도바시),
九段下(구단시타), 淺草(아사쿠사), 武藏野館(무사시노칸), 須田町(스다초),
法政(호세이)大學, 麴町區 富士見町(고지마치 구 후지미초), 土手(도테)公園,
神樂坂(가구라자카), 明治製菓(메이지세이카), 数寄屋橋(스키야바시), 銀座(긴자),
巢鴨(스가모)警察署

[작품 개요] 박태원의 도쿄 유학 체험이 농후하게 반영된 소설이다. 도쿄 교외의 고엔지에 있는 하숙집에 사는 법정대 학생 김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주인공이다. 즉, 오모리 셋방에서 일본인 부인과 같이 사는 가난한 문필가 최, 고향 아버지의 돈을 자본으로 삼아 마작 클럽을 경영하는 조, 그리고 거처불명의 고학생 황 등 세 명이다. 그들의 도쿄에서의 생활이 ‘고현학’ 수법으로 자세하게 그려진다.

실제로 곤 와지로(今和次郎)가 엮은 『新版大東京案内』(1929, 中央公論社(주오코론샤))에서 인용한 글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신주쿠 역 게시판에 적힌 글들을 그대로 옮겨쓰기도 한다. 또한 ‘조선식당’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문이나 철수가 받은 엽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극장 무사시노칸 내부와 상영중인 영화 《미키마우스》의 장면을 박태원이 직접 삽화로 그리기도 한다.

관동대지진 후에 급속도로 근대화를 달성한 도쿄의 모습, 즉 카페나 댄스홀, 영화관, 유곽 등 향락적인 거리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반면, 쇼와공황(昭和恐慌)으로 빈곤에 시달리거나 일본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유학생들의 비애 등 어두운 면도 그려졌다. 철수의 연애 사건과 고학생 황의 절도 사건도 벌어졌는데, 결말을 보지 못한 채 57 회로 연재가 중단됐다. 중단 이튿날에 『동아일보』 문예란에 ‘저자의 사정으로부터 중지하게 되었다’는 발표와 더불어 윤백남의 시대소설 <烽火>의 연재 예고가 실렸다. 그런데 다음 해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는 <小說家仇甫氏의 一日>에서 박태원은 윤백남에 대해 야유하듯이 언급한다. 경성의 다방에서 만났던 “속물쟁이”가 윤백남의 대중소설 <大盜賊>을 걸작이라고 칭찬하자 구보가 불쾌감을 표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4) <小說家仇甫氏의 一日> (『조선중앙일보』 1934.8.1 ~ 9.19) 삽화는 하용(河戎) 이상(李箱))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神田(간다), 神保町(진보초), 牛込區 矢來町(우시고메 구 야라이초), 新潮社(신초샤), 武藏野館(무사시노칸), 銀座(긴자), 日比谷(히비야) 公園

[작품 개요] 젊은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가 경성 거리를 목적도 없이 돌아다닌다. 거리를 거닐면서 만난 사람과 풍경을 제임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수법과 기교적인 문체로 써내려 간다. 식민지도시 경성에 사는 무직 인텔리 청년의 우울함과 권태, 고독이

잘 드러나 있다. 주인공 구보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과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쿄 유학 시절에 성사되지 못한 연애 추억을 플래시백처럼 떠올린다. 도쿄를 회상하는 장면은 진보초, 신주쿠 무사시노칸, 긴자, 히비야 공원 등이 무대로 되어 있으며, 영화 《러브 퍼레이드》, 《서부전선 이상없다》나, 여성 소설가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 등 <半年間>에 등장하는 작품·인물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구보가 신주쿠 무사시노칸에서 여자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이 발각되어 식은땀을 흘렸다는, <半年間>과 비슷한 에피소드도 있다. 다만 <半年間>에서는 철수의 연애가 하숙집의 일본 여자와 카페에서 일하는 조선인 여급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는데, <小說家仇甫氏의 一日>에서는 구보의 애인이 “임(姪)”자 이름을 가진 조선인 여학생이었는데 히비야 공원에서의 본의 아닌 이별로 막을 내린다. <半年間>에서는 도쿄 이야기가 장황하게 서술되고 결국 미완으로 끝나는데, <小說家仇甫氏의 一日>에서는 경성이 주무대이면서 도쿄가 단편적인 회상의 형태로 경성의 현실에 끼워 넣어짐으로써 오히려 구보 박태원의 심상 풍경을 또렷이 잘 보여주고 있다.

(5) <딱한 사람들> (『중앙』 1934년 9월호)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四谷(요쓰야), 芝區 新橋(시바 구 신바시), 麴町 元園町(고지마치 모토조노초), 高島屋(다카시마야), 御徒町(오카치마치)驛, 大塚(오쓰카)公園, 永代橋(에이타이바시), 深川門前仲町(후카가와 몬젠나카초)

[작품 개요] 방값도 내지 못하고 하숙집에서 굶주리고 있던 조선인 고학생 순구와 진수의 이야기다. 요쓰야나 신바시 등의 지명은 신문 구인란 삼행광고(三行廣告)가 그대로 소설 속에 삽입된 것이고 오쓰카나 에이타이바시 등은 진수가 돌아다니던 곳들의 이름이다. 진수의 구직 활동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순구는 간직해 두었던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반으로 나눠 진수에게 준다.

(6) <芳蘭莊主人> (『시와 소설』 1권 1호, 1936년 3월)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新宿으로 「스끼야끼」를 먹으러 갔든것이나”라는 부분 뿐이다. 소설의 무대는 도쿄 교외로 추측되는데, 어쩌면 <半年間>에 그려진 고엔지 근처일지도 모른다.

[작품 개요] 불우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다방 방란장이 경영 부진으로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그려진다. 다방 주인은 이상을 연상시키는데 무대는 도쿄이다. 구인회 잡지에 실린 소설이며 작품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된 기교적인 ‘장거리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부제가 “星群中の 하나”인 것으로 보아 다음 작품인 <星群>이 이 소설의 속편으로 보인다.

(7) 「星群」 (『조광』 1937년 11월호)

[등장하는 도쿄의 지명] ‘東京市外(도쿄시외)’와 ‘武蔵野(무사시노)’가 있을 뿐이나, 등장인물의 고향으로서 青森(아오모리)와 新潟(니이가타)라는 지방 이름이 나온다.

[작품 개요] 방란장이 폐업하는 날의 소동을 그린 소설인데 등장인물들에는 조선인 뿐만 아니라, “子爵(자작)”, “晩成(만성)”, “水鏡先生(수경선생)”, “윌리엄 텔”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젊은 일본인 예술가들도 있다. 그들은 구인회 멤버를 본뜬 것처럼 보인다.

다방 폐업 대책회 도중에 고향에서 가출해 나왔던 음악가 지망생 청년 윌리엄, 본명 日下部(구사카베)가 도쿄까지 찾아온 아오모리 현의회 의원인 아버지와 화해한다. 불우한 화가인 방란장 주인은 다방 문을 닫은 후 내연녀이자 여급인 미사에를 어떻게 할지, 니이가타의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할 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들 부부는 박태원의 친구 이상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상은 박태원이 <芳蘭莊主人>(1936.3)을 발표한 같은 해 1936년 10월에 독일하나 다음 해 1937년 4월에 도쿄에서 객사한다.

3. 참고 문헌 · 논문

今和次郎 編纂, 『新版大東京案内』, 東京: 中央公論社, 1929.

今和次郎·吉田謙吉, 『考現學採集・モデルノロヂオ』, 東京: 建設社, 1931.

『今和次郎集 1: 考現學』, 東京: ドメス出版, 1971.

今和次郎 編纂, 『新版大東京案内』 上・下, 東京: 筑摩書房, 2001.

강소영, 「박태원의 일본 유학 배경」, 『구보학보』 6, 구보학회, 2011.

강소영, 「식민지 문학과 동경(東京): 박태원의 『반년간』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화』 19, 한국일본언어문학학회, 2011.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 박태원: 창작방법의 비판적 고찰」, 『구보학보』 6, 구보학회, 2013.

김용하(金龍河)·김윤미(金潤美)·도미이 마사노리(富井正憲), 「콘 와지로(今和次郎)와 일제강점기 조선」, 『콘 와지로 필드노트: 1920년대 조선 민가와 생활에 대한 소묘』, 서울역사박물관, 2016.

박일영,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경성 모던보이 박태원의 사생활』, 문학과지성사, 2016.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소비·노동·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이연, 2013.

李敬恩, 「植民地朝鮮文學の東京表象: 朴泰遠の「三日空き腹、春の月」をめぐって」,

- 『比較文學·文化論集』, 17, 東京大學比較文學·文化研究會, 2007.
- 徐智瑛, 姜信子·高橋梓 譯, 『京城のモダンガール: 消費·労働·女性から見た植民地近代』, 東京: みすず書房, 2016.
- 白惠俊, 「考現學と日韓モダニズム文學」, 『文京學院大學外國語學部文京學院短期大學紀要』 7, 文京學院大學總合研究所, 2007.

4. 문학 답사 코스 선정과 자료 작성

문학 답사 코스를 선정하기 위해 작품 7 편을 검토한 결과, 박태원의 도쿄 유학 생활 체험이 가장 농후하게 반영된 작품으로 <나팔>과 <半年間>, 그리고 <小説家仇甫氏の一日>(동경 회상 장면) 등 세 작품을 선택했다. 특히 <半年間>에 나타난 장소들을 중심으로 답사 코스를 선정하기로 했다. (코스 내용은 다카하시 아즈사의 글 <문학 답사 개요> 참조)

그 다음 작업으로 작품에 나타난 지명이나 건물, 그리고 그 당시 도쿄에 있던 풍물들에 관해 주를 달았다. 책이나 지도, 사진집 등 적절한 참고자료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 곤 와지로(今和次郎)가 엮은 『新版大東京案内』(2001 년판)였다. 이 책의 원본인 주오코론샤(中央公論社) 판이 간행된 시기는 1929 년 12 월로 박태원이 도쿄 유학을 시작한 1930 년 4 월의 직전이었다. 이 책은 당시 도쿄의 생생한 모습을 고현학적 관찰 수법과 분석력으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곤 와지로가 ‘大東京(대도쿄)’라고 표시한 배경에는, 도쿄가 관동대지진 이후 7 년간 눈부신 부흥을 이루고, 그 도시화가 교외로 확대해가는 상황이 있었다. 도쿄 시는 1932 년에 인접한 5 군 82 초촌(町村)을 편입하여 말 그대로 ‘대도쿄’로 변해갔는데, 곤 와지로가 바로 그러한 추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33 년 6 월 14 일 『동아일보』에 실린 <半年間> 연재 예고인 「작자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이것은 박태원이 『新版大東京案内』의 서술 시기에 맞추어 소설을 쓴 것이 아닌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강조는 인용자).

『반년간』은 동경에 있어서의 『반년간』입니다. 작자는 이 소설 속에서 동경에서의 우리 몇몇 친구의 생활을 그려보려합니다. 이 계획을 가진지 이래 삼년, 이제 기회를 얻어 펜을 들었습니다. (중략) 1930 년 10 월부터 1931 년 3 월까지의 동경의 『반년간』 그러니까, 근린군부(近隣郡部)를 편입(編入)하여 이룬 새로운 동경

이전의 『동경』이 이 소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半年間>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사물을 『新版大東京案内』의 관련 항목에서 찾아보면 곳곳에서 『新版大東京案内』를 참조한 부분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서술이나 삽화 중에는 『新版大東京案内』에서 그대로 따온 것들도 있다. 박태원이 분명히 『新版大東京案内』를 읽으면서 <半年間>을 집필했다고 할 수 있다.<半年間> 뿐만 아니라 <小説家仇甫氏の一日>의 삽화에도 『新版大東京案内』에 실린 사진과 똑같은 것이 있다. <半年間>을 연재했던 1933년, 그리고 <小説家仇甫氏の一日>을 연재했던 1934년에 박태원이 『新版大東京案内』를 옆에 두고 도쿄 유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소설로 엮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혹은 그가 도쿄 체류 중에 <半年間> 집필 구상을 했다고 하니, 실제로 신주쿠나 진보초, 가구라자카 등을 돌아다니고, 무사시노칸에서 영화 구경도 하면서 『新版大東京案内』를 참고로 소설 구상을 다듬어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문학 답사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그 일부이다. 소설 인용문에 단 주는 『新版大東京案内』와 관련이 있는 것을 주로 뽑았다. 그리고 답사 당일에 호세이대학에서 들은 설명을 보충하고, 답사 참가자에게 제공한 그 당시의 도쿄 풍경 사진과 곤 와지로가 손수 그린 신주쿠 역 주변 지도도 첨부한다.

아래에 첨부한 원문 발취와 주 등의 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박태원 소설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태원과 곤 와지로, 특히 <半年間>과 『新版大東京案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팔> 원문 발취와 주석

원문 쪽수는 『박태원 수필집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원문 발취】 pp.141-144

오월로 하여서는 더운 날이다.

채 단장을 고치기 전에 이쪽 저쪽에 상처를 입은 「애스펠트」가 영어터 터진 종기 구녕의 고름 모양으로 지르르 흐르는 「핏츠」(瀝靑)를 상처마다 들어내고 있다.

그 위를 이백열여섯 개의 구두발이 걷고 있다.

엇 둘, 엇 둘……

일백여덟 명의 병정들의 행진이다.

나팔이 네 개였다. 네 개의 나팔을 앞잡이가 불고 갔다.

(中略)

자기네들을 한축에 끼워주기는커녕, 도리어 원수로 여기고 있는 민중 앞에, 자기네들의 꼴을 보이기를 그들은 꺼리었다. …… 그러나 끝끝내 이렇게 보이게 된 까닭에 그들은 아주 낙심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네들의 「존재의 의의」며 「가치」를 주장할 용기도, 욕심도, 무론 그들에게는 없었다.

대낮의 거리는 복잡거리고, 아스팔트의 길은 길다.

복잡거리는 군중들을 말없이 말을 잇은 듯이 그들은 아스팔트 위의 행진을 계속한다.

엇 들, 엇 들

엇 들, 엇 들……

(中略)

그들은 그대로 걸어간다.

「간다바시」(神田橋)로 해서, 「오가와마찌」(小川町)로 해서. 【註 1】

엇 들, 엇 들

엇 들, 엇 들……

(中略)

오월로 하여서는 더운 날이었다.

나는 다 탄 「꼴든·뻬」 【註 2】 을 아무렇게나 아스팔트 위에 내어던지고 내 길을 걸어갔다.

바로 며칠 전에 「메이데이·데모」 【註 3】 가 그렇게도 굳세고, 힘차고, 열 있고, 자신 있고, 그리고 그렇게도 희망으로 가득 찬 행진을 하여간 뒤의 이 거리에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웁고, 모순되고, 그리고 가엾은 행렬이었다.

병정들이 지나간 뒤의 거리에 약하디 약한 나팔 소리가 잠깐 동안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발악을 하다하다 못해 지쳐버린 듯이 차츰차츰 죽어갔다.

그리다가 그 소리는 이 거리에서 아주 사러져 버리었다.(그만)

【註 1】 ‘神田橋’로 해서 ‘小川町’로 해서

간다바시라는 다리는 1884년 목조 다리로 개수되나 관동대지진으로 다 타버린다. 그 후 1925년 돌과 콘크리트로 다시 재건된다. 현재 도쿄 수도고속도로 간다바시 IC 옆에 있다.

필자 ‘나’, 즉 몽보(夢甫) 박태원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병정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곤 와지로의 『新版大東京案内』(이하 인용 쪽수는 今和次郎 編纂,

『新版大東京案内』 上・下, 東京: 筑摩書房, 2001에 의함)에 따르면, 그 당시 도쿄에는

구단사카우에(九段坂上)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부록 1 사진 참조】 근처에 근위(近衛) 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저녁때 자꾸 돌담 위에서 나팔을 분다. 그 안쪽에 보병 제 1 여단, 보병 제 1, 제 2 연대가 있다”(상, 174 쪽), 또 “아카사카(赤坂) 구는 일대가 병사 거리라고 할 만하다”고 한다(상, 176 쪽). 노기(乃木) 신사 주변에 있었던 아자부(麻布) 3 연대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註 2】 「꼴든·뻬」

‘꼴든·뻬’은 일본에서 1906 년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발매된 가장 값싼 담배로, 그 당시 한 갑 10 개비가 4 전이었다. 패키지에 금색 박쥐(golden bat)가 그려져 있었고, 원래 중국 수출용이었다. 그 당시 이 담배를 즐겨 피웠던 작가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유명하다.

그런데 소설 <半年間>에는 “빠또”라고 일본사람이 부르는 발음 그대로 등장한다.

【註 3】 메이데이 데모

<나팔>에서 병정의 행진과 비교된 메이데이 데모에 대해서는, 『新版大東京案内』 중 “연중행사의 도쿄”에도 서술되어 있다. 5 월을 소개하는 항목에 “우에노(上野) 공원에서의 메이데이 연설”이라는 사진이 다음과 같은 문장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행진 장소는 다르지만, <나팔>의 묘사와도 상통하며,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 있다.

1 일 메이데이는 오월제(五月祭)라고 하는데,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시바(芝) 공원에서 우에노 내지 옛주지마(越中島)까지 몇 리의 길을 빨간 조합기를 앞세우고 수천 명의 경찰관에게 호위를 받거나 혹은 단속당하면서 고창난투(高唱亂鬪)하는 행진을 보면 그냥 축제 수준이 아니다. …… 참고로 “들어라 만국의 노동자여, 울려퍼지는 메이데이의 시위자가 일으킨 발소리와 미래를 고하는 함성을……” 이란 메이데이의 노래는 제 3 회 메이데이 때, 기계공조합 소속이었던 후카가와(深川)의 노동자 오오바 이사무(大場勇) 군의 작품으로 노동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땅히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상, 326~328 쪽)

<반 년 간(半年間)> (원문 발취와 주석)

원문 쪽수는 『박태원 중·단편소설집 윤초시의 상경』 깊은샘, 1991

*오자임이 분명한 부분은 인용자가 수정했음.

【원문 발취 (1) pp.250-228】

「오래간만에 **신숙(新宿) 【註 1】** 이나 산책합시다그려.」

철수는 대답없이 준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개찰구를 나서자, 마침 전차가 들어왔다. 그들은 그중 뒷차에 올라탔다. **신숙**에서 내리기에는 그중 뒤가 편한 까닭이다. 승객은 여전히 많은 편이었으나 그들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中略)

전차가 **신숙역**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차를 내려 **지하도 【註 1】** 로 통하는 층계를 내려갔다.

(中略)

지하도 【註 1】 안은 백주와 같이 환하였다. 그 속이 터지게 군중들은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의 뒤에서 뒤를 이어 사람들은 경쟁이나 하듯이 빠른 걸음걸이로 두 사람의 옆으로 사이로 앞서 빠져 나갔다.

하루 18 만 명의 승강객을 삼키고 토하고 하는 이 일본 일이라는 **지하도 【註 1】** 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끊임없이 복작대는 것이다. 모두들 가장 시간을 아끼는 듯이 가장 불일이 바쁜 듯이 그들은 이 지하도로 달음질치듯이 들어오고 쫓기는 듯이 나갔다.

두 사람은 그들 틈에 끼어 역 밖에까지 나왔다.

【원문 발취 (2) pp.338-342】

신숙(新宿)

그 이튿날 오전 열한시 30 분에 철수는 **신숙역**에 나타났다.

(中略)

진재전(震災前)까지도 신숙은 한개 보잘것없는 동리였다. 그것은 동경 시외의 한개 조그마한-조그마하기 때문에 귀여운-동리에 지나지 못하였다.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신숙**에-」

신숙에-라고 오직 한마디하였을 뿐으로 사람들은 이 실없는 친구가 간밤에 ‘**유곽**’ **【註 2】** 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신숙이 동경의 시민과 교섭이 있다면, 그것은 ‘**유곽**’ **【註 2】** 을 통하여서의 일이었다. **유곽**이 이 동리의 존재를 대표할 만큼 고만한 정도로 **신숙**은 유명하였다.

그러하던 것이 저 유명한 **관동대진재**를 겪고 나자 갑자기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신숙**은 진재에도 타지 않았다. 그러나 진재 후의 **신숙**은 결코 진재전의 **신숙**이

아니었다. 진재에는 타지 않았어도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서는 우선 사람 손에 도피될 필요가 있었다.

길을 닦는 요란한 곡괭이 소리. 곡괭이 소리 뒤에 일어나는 아스팔트 굽는 연기. 그 연기와 함께 새로운 건물, 광대한 건물은 한층, 두층, 세층, 네층 높게 더 높게 쌓아 올라갔다.

백화점이 생기고, 극장이 생기고, 요리점, 카페, 음식점, 마찌아이(待合), 팬스홀. 그리고 또 온갖 종류의 광대한 점포—

양편에 늘어선 그 건물 사이를 전차, 자동차, 자전거가 끊임없이 다니고, 그리고 그보다도 무서운, 오— 군중의 대홍수—

밤이면 붉게 푸르게 밤 하늘에 반짝이는 찬연한 네온사인 문자 그대로의 불야성 아래 비약하는 근대적 불량성—

겨우 10년의 시일을 가지고 이 온갖 근대 도시적 요소를 구비한 ‘신숙’은, 이미 진재 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유곽 같은 것쯤으로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광대하였다.

신숙이 이렇게 고속도로 발전한 것에는 도시와 근교와 지방의 교류작용에 힘입음이 많다.

신숙역 안에 한발을 들여놓아 보라. 아주 정확하게 사분의 간격을 두고 끌어오는 열차. 【註1】 동경 시외를 순환하는 야마데센. 그리고 유행가 속에까지 나오는 오다쥬(小田原急行).

【註1】 신숙(新宿) / 지하도 / 사분의 간격을 두고 끌어오는 열차

신주쿠에 관해서는 『新版大東京案内』 상권 “번화가[盛り場]”라는 항목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신주쿠 역과 지하도, 그리고 대지진 이후 신주쿠가 급속하게 발전한 것에 대한 서술도 있는데, 그 중에는 <半年間>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표현도 보인다.

정확히 4분 간격으로 도착하고 출발하는 주오(中央) 선 전차 …… 이른 아침부터 심야까지 여기는 참으로 견마곡격(肩摩穀擊). 최근 철도성(鐵道省) 조사에 의하면, 승강객수는 도쿄 역을 능가하여 수만 명, 즉 하루의 승차객이 9만여명, 하차객 역시 9만여명, 합해서 18만여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그 길고 환한 타일로 포장된 지하도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다. …… 이 홍수를 쏟아붓는 지하도야말로 일본 제일의 지하도라 …… (상, 221 쪽)

신주쿠는 지진 재해(震災) 때도 타지 않았다. 게다가 일진월보의 기세로 자꾸자꾸 발전 변화해 간다. 도내(都下)에서는 이곳에 견줄 만한 곳이 없으리라. …… 신주쿠야말로 도시와 근교와 지방과의 교류작용으로 생긴 고속도(高速度)로 발전된 시가지의 대표적인 샘플이다. (상, 228~229 쪽)

【註 2】 유곽(遊郭)

신주쿠 유곽은 1918 년에 대로변에 산재해 있던 사창가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생겼다. 관동대지진으로 도쿄 동쪽 일대가 피해를 받고 거기에 있던 유곽도 큰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신주쿠는 피해가 경미했다. 이재민들이 주오(中央) 선을 따라 교외로 이동해 살았기 때문에 그 기점인 신주쿠가 새로운 변화가로 발전하고 신주쿠 유곽도 새로운 스타일의 “모던 유곽”으로 변해갔다. 『新版大東京案内』 중 신주쿠 유곽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유곽은 현재 2 초메(丁目) 뒷골목에 일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신주쿠 특유의 청신발랄(清新潑刺)함과 유동성(流動性)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기녀들의 비현대적인 사진보다는 싱싱한 댄서의 각선미나 카페 여급의 활발한 모던함으로 현대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 일본이 이미 공창 시대가 아니게 됐음이 여기서도 실제로 증명이 된다. (상, 225~226 쪽)

<반년간(半年間)>(p.264)에는 신주쿠 유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밤깊은 거리는 신숙 역시 쓸쓸하였다.

유곽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은 밤 새기까지 이 거리에 끊이지 않고, 또 거의 줄을 이어 택시는 달려오고, 달려갔으나 그것들은 도리어 이 거리의 공기를 한층 더 쓸쓸하고 언짢고 야릇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디선지 킁킁하고 개가 짖었다. 대도회의 거리에도 개는 있었다.

【원문 발취 (3) pp.227-228】

그들은 군중 틈에 부대끼면서 보도 위를 헤엄치듯 걸어갔다. 더욱이 보도 위에 일차 장사진을 치고 있는 야시 【註 3】 로 하여 그것은 제법 힘드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 틈에 끼어 몇번인가 서로 헤어졌다 모였다 하였다.

그러자 준호는

〈高級ステッキ大亂賣〉 [고급 지팡이 몽땅 투매]

라고 소학교 생도의 글씨 같은 것으로 흘러 쓴 양지쪽 밑에가 걸음을 멈추었다.

(中略)

「일전구백삼십년도식 신사 어른들은 사랑의 마스코트로 이런 것을 애용하십니다.」

(中略)

철수는 최가 턱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역시 회사원 타일의 젊은 사나이가 메리야쓰를 팔고 있었다. 그 옆은 열 개에 십 전짜리 장난감 자동차, 비행기의 장수였다.

「어려운 시절이야.」 【註 4】

「언제까지 이럴 모양인가.」

그들은 잠깐 말없이 나란히 서서 길을 걸었다. 호테이야 백화점 【註 5】 을 지나서는 사람이 그리 복잡대지 않았다.

【註 3】 야시

『新版大東京案内』에는 “노점(露店)”이라는 표제 아래 신주쿠 노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신주쿠] 노점은 아사쿠사만큼은 아니지만 긴자에 지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다. 게다가 오후부터 심야까지 늘어서 있다.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거기에 노점이 늘어서기 때문에 인도(人道)는 마치 골목처럼 좁다. 그곳을 신주쿠 역에서 토해 낸 18 만여명의 인파와 전차나 도보로 모여든 수만의 군중이 뒤죽박죽이 되어 왕래하는 것이라 …… 이 혼잡함도 참으로 일본 제일일 것이다. (상, 226 쪽)

노점들이 밤에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요미세(夜店)라고 불리기도 했다. 今和次郎·吉田謙吉, 『考現學採集: モデルノロヂオ』 (建設社, 1931)에는 〈新宿夜店一覽表(신숙 야시장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다.

【註 4】 「어려운 시절이야.」

쇼와공황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29 년(쇼와 4 년) 세계공황의 영향이 일본에까지 파급되어 1930 년(쇼와 5 년)부터 1931 년(쇼와 6 년)에 걸쳐서 일본 경제가 위기적인 상황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해서 도시에서는 회사가 많이 도산하여 실업자가 거리에 넘칠 만큼 많아졌다. 박태원 유학 시절은 바로 이런 상황일 때였다.

【註 5】호테이야 백화점

호테이야(ほてい屋)는 1877년에 요쓰야구 고지마치(四谷区麴町)에서 창업했다. 1925년에는 백화점으로서 맨 처음 신주쿠에 진출하고, 1929년에는 증축 공사도 했다. 그러나 그후 서서히 고객이 줄어들어, 1935년에는 신주쿠에 진출해온 이세탄(伊勢丹) 백화점이 호테이야 옆에 점포를 짓고 결국 호테이야를 매수했다. 호테이야에 관한 『新版大東京案内』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이 네 개. 미쓰코시(三越), 호테이야, 신주쿠데파트(新宿デパート), 신주쿠 마쓰야(新宿松屋).

현재 미쓰코시 분점(分店)은 건물의 협애함을 느끼기에 옛 무사시노칸 건물 터를 매수해서 당당하게 신축중이다. 호테이야도 증축이 완성, 신주쿠 마쓰야도 요새 평판이 좋다. 이들 백화점도 길거리가 북적대듯이 항상 북적거린다. (상, 227~228 쪽)

『考現學採集』(1931)에는 <변화가 신주쿠의 음식점 분포도>가 있고 호테이야, 마쓰야, 무사시노칸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분포도는 『今和次郎集 1: 考現學』(ドメス 出版, 1971)의 속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부록 2 참조】.

【원문 발취 (4) p.254】

「그럼 저리로나 갈까?」

준호의 번쩍 쳐들은 단장 끝에 철수는 현대인의 말초신경 같이 가늘게 경련하는 네온사인을 보았다.

카페 【註 6】 오모이데 [추억] -

【註 6】 카페

일본에서 카페의 기원은 1911년이다. 그 때는 양식요리와 커피, 술이 주된 메뉴였다. 그런데 관동대지진 이후 카페는 주로 여급의 서비스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어 여급은 단지 웨이트리스일 뿐만 아니라 바나 나이트클럽의 접대부가 되어 버렸다. 1933년, 카페는 특수다방(풍속영업점)으로서 경찰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카페는 쇼와 초기에 예로 그로 년센스가 유행하게 되면서 밤거리를 장식하는 존재로 소설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半年間>에 언급되어 있는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의 『婦人公論(후진코론)』에 연재한 <女給(여급)>(p.314 참조)이나 나가이 가후(永井荷風)의 <つゆのあとさき(장마전후)>,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痴人の愛(치인의 사랑)> 등이 그

사례들이다. 카페에 대해서는 『新版大東京案内』에 다음과 같이 서술돼 있다.

세상에서 나날이 진행되는 불경기에 반비례하여 최근 [도쿄] 시 내외에서 카페, 바가 팽창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이다. 불과 1, 2년 사이에 긴자, 아사쿠사, 간다, 신주쿠에도 어지러울 정도의 쾌속력으로 카페나 바가 늘어나, 카페가 6187 집, 바가 1345 집이라는 경시청의 통계(쇼와 4년 8월 현재)는 지금이 바로 카페 황금시대임을 말해 준다. 카페의 흥수! 게다가 거기서 일하는 여급은 …… 대부분이 손님이 주는 팁을 유일한 수입으로 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상, 277 쪽)

신주쿠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 굉장한 세력으로 발전 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카페이다.

우선 제일 가는 카페 거리는 미쓰코시 신축장(新築場) 골목이다. 미인 여급을 무려 30명이나 두고 있으며 끊임없이 신문광고를 내고 있는 미하토를 필두로 …… 흥낙황(紅綠黃)의 장식등 빛이 여러 겹으로 화려하게 교차하고 있다. (상, 225 쪽)

간다보다 더 화려하고 농염(濃艷)하게 카페가 만연해 간 곳은 신주쿠 무사시노칸 주변 일대이다. (상, 286 쪽)

【원문 발취 (5) p.265】

최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골목속 그리 깊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야끼도리야’ 【註 7】의 등불이 보인다.

【註 7】 ‘야끼도리야’

“야끼도리야(やきとり屋)”는 여기서는 야키토리(닭꼬치구이)와 술을 파는 노점, 즉 이동식 선술집을 가리킨다. 【부록 3 삽화(연재 제 13 회) 참조】 삽화의 윗부분에 보이는 “琉球泡盛”이라는 한자는 “류큐 아와모리”, 즉 오키나와산 소주를 의미한다.

『新版大東京案内』(상, 212 쪽)에는 노점과 야키토리가 아사쿠사 공원에 있는 노점 중 하나로 설명되어 있다. 「사흘 굶은 봄나달」을 쓸 때 박태원이 그 부분을 참조한 것 같다.

【원문 발취 (6) p.287】

스루가다이시다에서부터 구단시다(九段下)까지 전찻길 양편에 헌책사【註8】가 쭉욱
쳐마 끝을 맞이고 있다. 특히 서생들이 좋아하는 동리다.

「어디 잠깐 들러 보세.」

조는 한 책사 안으로 들어갔다. 【부록 3 삽화 참조】 벌려놓은 책들을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더니 〈西部戰線異狀 없다〉【註9】를 집어 들고 준호를 돌아보았다.

「이게 요새 유행인가 보드군.」

「유행이라? 하하.」

「하여튼 많이들 읽는 모양 아니야?」

「그는 그렇지.」

조는 점원이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얼마요?」

「고맙습니다. 네, 70 전입니다.」

「50 전만 합시다.」

「그렇게 안됩니다. 이책은 잘 팔리니깐…… 어디서든 덜 주고는 못 사실 것입니다.

정가는 1 원 50 전【註8】이나— 하지 않습니까?」

(中略)

조는 책을 사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짐보쵸(神保町)네거리【註8】까지 와서 바른 편으로 꺾었다. 그리로 곧장 가면
스이도바시【註8】다.

【註8】헌책사 / 짐보쵸(神保町)네거리

진보초 헌책방 거리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진 거리다. 관동대지진 후
부흥사업으로서 큰 포장도로 ‘다이쇼 도리’(大正通り), 현 야스쿠니 도리)가 완성되자
교차로 이름으로 진보초가 등장했다. 『新版大東京案内』에서는 ‘특수가(特殊街)’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서점가

시전(市電) 스루가다이시타(駿河台下)에서 구단시타(九段下)에 이르는 진보초와
기타진보초(北神保町)에 이어지는 전찻길 양편을 걸어가다 보면 늘어서 있는 가게가
거의 다 헌책방인 것에 놀라게 된다. 간다 구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 대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헌책방인 듯 하다. ……

여하튼 메이지(明治)대학, 쇼카(商科)대학, 주오(中央)대학, 센슈(專修)대학 기타

독학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편리한 사립학교, 수험학원 등등 시중에서도 보기 드문 학교
집중 구역인 만큼 이 현책방 거리의 번창함은 상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하,
53~55 쪽)

그리고 『新版大東京案内』(하, 54 쪽)에 게재된 사진 〈간다 진보초통의 현책방
거리(神田神保町通りの古本街)〉에는 서점마다 입구에 세운 간판들이 보인다. 그 중 한
간판에 “현책 아무거나 고가 매입합니다(古本何でも高く買います)”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半年間〉(제 20 회) 삽화에 그려져 있는 간판의 광고 문구와 똑같다. 박태원이 그
사진을 참조하면서 삽화를 그린 것 같다. 그런데 간판 옆에 그려진 동그란 안경을 쓴
얼굴은 박태원 자신을 본뜬 주인공 철수가 아니라 그의 친구 조이다. 모자는 호세이대학
학모가 아니라 헌팅캡으로 보인다. 【부록 3 삽화 참조】

【註 9】 〈西部戰線異狀 없다〉 / 정가는 1 원 50 전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독일 작가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 본명 Erich Paul
Remark)가 쓴 장편소설이다. 제 1 차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에 동원된 독일군 지원병의
고뇌와 죽음을 그리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고발한 소설로서 그 당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일본어판은 1929 년 중앙공론사에서 출간됐다.
『新版大東京案内』(상, 47 쪽)에는 중앙공론사의 전면 광고가 실려 있는데 그 첫머리에 이
책이 나온다. 선전문은 “E·M·ルマルク著 秦豊吉譯 西部戰線異狀なし 定價
一圓五十錢(E·M·루마르크 저 하타 도요키치 역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정가 일원
오십전)”이고 이 책의 정가가 〈半年間〉에 등장하는 대로 1 원 50 전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원문 발취 (7) pp.288-290】

「좀 이르지만 아주 저녁을 자실까?」

조는 전차길 건너편으로 눈을 던졌다. 그곳 골목 안에 **조선식당** 【註 10】 이란 붉은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 공기속에 축 늘어져 있다.

두 사람은 전차길을 건너 갔다.

(中略)

준호는 조를 쳐다보았다. 조는 말없이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東亞日報 朝鮮日報

右 購讀申込을 本食堂에서 取次합니다.

三千里 十月號 出來

急 告

朝鮮同胞諸位の 熱烈한 御後授 御愛護에 依하여 日益繁冒하는
本洋服店은 其惠施를 萬分の 一이라도 報答키 위하여 今番에 更히
技術 優秀한 織工 數名을 採用하여 大衆的 廉價로 迅速親切히
御下命을 苦待하오니 諸位는 向後 一層 愛護하시라

昭和五年九月 日 ××縣 ××町 ××番地

○○ 양복점主 ×××謹白

이러한 문구를 쓴 크고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註 10】

【註 10】 조선식당 / 이러한 문구를 쓴 크고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조선식당이란 박태원의 소설 「향수」(『여성』 1936년 11월호)에 나오는 식당으로,
간다 사루가쿠초(猿樂町)에 실재한 명월관(明月館)을 가리킨다. 이 명월관 신주쿠 지점은
곤 와지로의 〈번화가 신주쿠 음식점 분포도〉에서 확인된다.

식당 벽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소설 속에 옮겨 적기도 하고 또 삽화로 그리기도
한 이 부분이야말로 박태원의 ‘고현학’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3 <半年間> 제 22 회 삽화, 조선식당 깃발과 제 23 회 삽화, 조선식당 벽에 게시된
광고문 참조】

【원문 발취 (8) pp.298-303】

「최군. 참 구경이나 같이 가세그려.」

「어디루?」

「무사시노칸 【註 11】 .」

「무슨 사진을 놀리기에?」

(中略)

차가 무사시노칸 앞에 다왔다. 그들은 문을 들어서서 잠깐 눈으로 자리를 골라
보았다. 그러자 조가 팔꿈치로 준호의 옆구리를 쳤다.

「저길 좀 보게.」

「어디?」

(中略)

어두운 속을 더듬어서 가족석 쪽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 준호는 조를 보고 그게 누구였었느냐? - 하고 물었다.

「김군이야 철수야.」

하고 조는 연해 그편을 바라보았으나 어두워서 찾아내지 못하였다.

(中略)

스크린에는 ‘만화 토키 영화’ <미키마우쓰의 모험> 【註 11】 이 관객들의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註 11】 무사시노칸 / ‘만화 토키 영화’ <미키마우쓰의 모험>

무사시노칸(武藏野館)은 1920년에 영화관으로 창설됐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가 10월에 영업을 재개했다. 1928년 신주쿠 3초메(丁目)로 이전하면서 1,500석의 로드쇼 영화극장이 되었다. 돛 형의 둥근 지붕을 가진 멋있는 건물이었다.

『新版大東京案内』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들이 있다.

근래까지 바라크 건물이 보통이었던 영화관이 본식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내화건축으로 바뀌게 된 것은 대단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식 극장은 신주쿠 무사시노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 88 쪽)

영화관 무사시노의 이름은 변사 도쿠가와 무세이(徳川夢聲)와 더불어 너무나 유명하다. 외관 의용(儀容)이 당당한, 신 가부키좌(新歌舞伎座)와 자주 대조된다. 다만 여기는 3등 관객을 아주 냉대한다. 그러나 1층 2층은 일류 극장에도 뒤지지 않는 설비다. 관객도 흰하고 고상하고 점잖다. 하여간 이런 점에서도 아사쿠사의 관객과는 정반대다. (상, 227)

…… 드디어 그것은 토키까지 발전했다.

“어젯밤에 호가쿠좌(邦樂座)에서 토키를 보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이야, 긴자 후지야(不二屋)에서 그래, 놀라지 마, 나 P 씨를 만났거든!”

“어머나! 기적도 많구나, 나도 어제 무사시노 복도에서 말이야, 그이를 잘도 잡았어-”

과연 “무사시노 복도”라니 장관(壯觀)이 아닌가요. …… 유라쿠초(有樂町)에 있는 호가쿠좌, 신주쿠에 있는 무사시노칸, -이 2대 상설관은 최근 영화계에서 파라마운트계 카르텔의 이중주이다. (상, 262~263 쪽)

무사시노칸의 모던한 내부를 찍은 사진 한 장이 『新版大東京案内』(상, 255 쪽)에 “어느 영화극장의 내부”라는 캡션과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똑같은 구도의 영화관 그림이 만화 영화 미키마우쓰의 스크린 장면과 함께 『半年間』 28 회 삽화에도 보인다. 이 사진과 그림을 비교해 보면 박태원이 『新版大東京案内』를 보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半年間>의 신문 연재 표제 위에는 무사시노칸의 돔 형 지붕이 자그맣게 그려져 있다.

【부록 4 참조】

【원문 발취 (9) pp.321-325】

아침에 철수가 이이다바시역(飯田橋驛)에 내려 바둑돌 깔린 길을, 학교 【註 12】로 향하여 걸어가려니까.

「미스터 김」

하고 누가 뒤에서 부른다. 돌아다보니 에프 이 머써(F. E. MERCER)라는 영국인 교수 【註 12】다.

(中略)

철수가 잠깐 그 뒷모양을 바라보며 청춘, 청춘 오- 청춘! 하고 선생을 입내 내어 말하였을 때,

「긴상!」

하고 누가 ‘도떼공원(土手公園)’ 【註 13】속에서 그를 불렀다.

고지마찌구, 후지미쵸에 있는 법정대학 【註 12】은 사이에 장방형의 못을 두고, 건너편 전차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전차길에 비하여 학교가 서있는 지대가 훨씬 높았다. 수면에서 우러러보면 그것은 높다란 언덕이다. 그 언덕에는 이전에

<この土手に 登るべからず [이 도떼에 올라가지 못한다.] 警視廳>

이라는 ‘첸류-(川柳)’ 【註 13】(일본 노래의 한 형식)가 써어 있는 목패가 서 있어 사람들의 올라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것이 철책을 두르고, 수통과 변소를 준비하고, 이곳저곳에 빈약하나마 벤취를 갖게 되자, 완전히 법정대학생들의 휴게소같이 되어 버렸다.

도떼공원 【註 13】이란, 이것을 가르쳐 하는 말이다.

【註 12】 학교 / 고지마찌구, 후지미쵸에 있는 법정대학 / 영국인 교수

박태원이 다니던 학교는 호세이대학인데, 『新版大東京案内』에서는 “도쿄의 대학”이란 항목에 그냥 “法政大學(麴町區 富士見町)”이라고 단 한 줄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하, 271 쪽). 그러나 『半年間』에서 일부러 학교 소재지를 쓴 것은 이 부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영국인 교수에 대해서, <半年間>에서는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데, <小説家仇甫氏の一日>에서는 무사시노칸 앞에서 구보가 여자를 데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해 놀라는 인물이 “외국부인”, 즉 “구보의 영어교사”이며 “삼십 독신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 호세이대학 교수들은 원칙적으로 남자였는데 예외적으로 여자도 외국인이나 나이가 젊지 않을 경우에만 임용됐다고 한다(호세이대학사 연구교수의 설명에 따름). 하여간 박태원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그 성과로 영문 소설의 조선어 번역이 ‘몽보(夢甫)’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註 13】 ‘도떼공원(土手公園)’/ ‘센류-(川柳)’

‘도떼공원’은 원래 에도(江戸)성곽을 방호하기 위해 둘러친 해자(壕字)에 만들어진 공원이어서 주위에 제방(도떼)이 둘러싸여 있었다. 『新版大東京案内』(상, 217 쪽)에 실린 사진 캡션 “우시고메 미쓰케(牛込見附)의 해자를 이용한 보트장”에는 “우측 위에 호세이대학 건물이 조금 보인다”라고 쓰여 있다. 【부록 5 사진 참조】 “〈この土手に 登るべからず (이 도떼에 올라가지 못한다) 경시청(警視廳)〉”은 원래 경찰이 세운 경고문인데, 어조가 좋은 문장이라서 그후 아이들이 절반은 장난삼아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센류-(川柳)’는 일본 시가의 한 형식인데, 하이쿠에 비해 풍자와 익살을 중요시하면서 세태를 묘사하는 특징이 있어서 박태원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新版大東京案内』(상, 212 쪽)에는 아사쿠사의 노점 묘사 속에 야키토리에 관한 센류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사흘 굶은 봄나달』 결말에 있는 야키토리 에피소드의 힌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원문 발취 (10) p.327】

철수는 가구라자까 【註 14】 쪽을 손가락질 하였다. 그리고 앞장을 서서 걸어가며, 명치제과 찻집에 누구든 그가 아는 사람이 있어 주기를 기대 하였다.

두 사람은 전차길을 건너, 가구라자까(神樂坂)의 이마 치받치는 고개를 올라갔다. 서울의 본정통(本町通)을 높게 고개지게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은 엉덩이 ‘가구라자까’를 방불케 하리라.

그러나 물론 이곳은 서울의 본정통보다 좀더 변화하였다. 일천구백이십구년 구월 어느 날 정오에 작성한, 이곳 통행인들의 분석표 【註 14】 에 의하면 학생이 48% 청년이 9% 점원이 8% 중년이 7% 계집 하인이 6% 그리고 여염집 부인, 노동자, 아이들, 기생, 군인, …기타—이러한 순위이다.

그야, **채집 시간이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닐, 정오였었다**는 것도 생각해 놓아야 마땅할 것이나, 하여튼 학생들이 일없이 방황하기, 이동리 이상의 장소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지리적 관계로 거의 대부분이 법정대학생 들이었다.

【註 14】 가구라자카 / 일천구백이십구년 구월 어느 날 정오에 작성한, 이곳 통행인들의 분석표

『新版大東京案内』(상, 215~216 쪽) 중 “번화가(盛り場)”라는 항목에는 긴자, 아사쿠사, 신주쿠와 함께 가구라자카(神樂坂)에 대한 서술이 있다.

그리고 “이곳 통행인들의 분석표”는 『新版大東京案内』(상, 249~252 쪽)에 있는 「번화가의 행인 분석표(盛場の人出分析表)」를 언급한 부분이다. 곤 와지로는 그 분석표에 대해 “쇼와 4년[1929년] 가을 각 번화가의 행인들을 조사하다 보니 여기에 게재한 것과 같은 도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집한 실수(實數)를 백분율로 바꾸어 각 번화가 행인들의 연령, 신분 등의 비율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라 쓰면서 뒤에 도겐자카(道玄坂), 신주쿠, 우에노, 가구라자카, 긴자, 닌교초(人形町)를 다닌 행인들을 각각 계층별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곤 와지로의 ‘고현학’ 실천이다. 그런데 <半年間>에서는 “일천구백이십구년 구월 어느 날 정오에 작성한, 이곳 통행인들의 분석표에 의하면”이라고 설명한 후, 「번화가 행인들의 분석표」 중 가구라자카의 막대 그래프 값을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다. 다만 원문의 일본어 한자 표기를 바꾸어서 “藝者”를 “기생”으로, “女中”를 “계집 하인”으로, “奥様”를 “여염집 부인”으로 각각 ‘번역’했다. 또 원문에는 각 번화가의 특색을 분석한 글이 따로 있었는데, 가구라자카에 대해서는 “채집 시간이 마침 정오 경이었던 탓인지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게 뚜렷하게 보였다”고 설명돼 있다. 박태원이 이 부분을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있다. 박태원이 곤 와지로의 ‘고현학’을 완전히 빌려 썼던 것이다.

【부록 6 盛場の人出分析表】(『今和次郎集 1: 考現學』, 257~259 쪽) 참조

【원문 발췌 (11) p.359】

「여자가 또 가자는 다른 데라는 곳은 대체 어딜꼬..」

철수는 또다시 **신숙역** 고지판 위의 문구를 생각해내는 것이었으나, 석 잔 술에 두 뺨과 눈가가 붉으레 하여진 여자의 얼굴은 좀더 매섭게 어여뻐다.

「열점 삼십오분.곧가셔요.철수씨. **이제 이십오분밖에 안 남았으니...** 【註 2 8】」

「어디를 가게?」

「**댄스 홀.**」 【註 2 8】

【註 2 8】 이제 이십오분밖에 안 남았으니…/「댄스 홀.」

그 당시 댄스홀 영업시간은 밤 11 시까지였다. 그 사실은 『新版大東京案内』 중 “향락의 도쿄”라는 항목에 보이는 기술에서 알 수 있다. 또 “댄스 시대”에는 댄스홀 사진 2 장과 그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박태원 자신이 실제로 댄스홀에 가지 않아도 이런 사진이나 글을 보았으면 소설에 쓸 수 있었을 것이다.

…… 댄스홀이란 분명히 젊은 사람들에게 비길 데 없는 환락경(歡樂郷)이다. …… 맥주 한 병 마실 돈만 있으면 남 앞에서 당당하게 여자와 서로 손을 잡아 몇 분 동안이나 남의 눈을 꺼리지 않고 춤 출 수 있는 곳이다. ……

대개 댄스홀은 입장료로 50 전을 받는데, 표를 사면 물론 이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댄스 요금으로 춤음기를 틀어 춤을 춘다. 낮에는 1 회 10 전, 밤에는 재즈가 있으니 20 전을 받는다. 20 세 전후의 젊은 댄서들은 매일 오후 2 시부터 밤 11 시까지, 담과 향수와 담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자의 품에 안겨서 춤을 추어야 한다.(상, 287~290 쪽)

댄스 시대 댄스, 댄스, 댄스. 아무리 탄압을 가해봤자 댄스홀은 여전히, 아니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다. 바닥이 다다미라도 양말의 감촉이 괴상하더라도 춤을 추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것이야말로 쇼와의 신생활 양태의 하나이다. 참으로 춤추는 인생이다. (하, 163 쪽)

〈小説家仇甫氏의 一日〉(도쿄의 회상 부분) 발취와 주석

원문 쪽수는 『한국 근대 단편소설 대계』 8, 태학사, 1997

【원문 발취 (1) p.278】

東京의 가을이다. 「간다」(神田)어느 鐵物塵에서 한개의 「네일,크립퍼」를 求한 仇甫는 「짐보오쵸오」(神保町) **【註 1】** 그가 가끔 드나드는 喫茶店을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休息을 爲함도、茶를 먹기爲함도 아니었던듯싶다. 오직 오늘 새로 求한 것으로 손톱을 깎기 爲하여서만인지도 몰랐다. 그중 구석진 테이블. 그중 구석진 椅子. 通俗作家들이 질겨 取扱하는 種類의 로맨스의 發端이 그곳에 있었다. 光線이 잘안들어오는 그곳 마루바닥에서 仇甫의 발길에 채인것. 한卷 大學노오트에는 倫理學 석자와 「姪」字가 든 姓名 **【註 1】** 이 記入되어있었다.

【註1】 「짐보오쫘오」(神保町) / 「姪」字가 든 姓名

진보초는 『半年間』에서는 주인공 철수와 친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였는데, 『小説家仇甫氏의 一日』에서는 구보가 찾아가는 다방이 있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姪(임)”은 여자 이름임을 나타내는 한자이므로, “倫理學” 노트의 소유자가 조선인 여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원문 발췌 (2) p.279】

…小説家다운 원갓妄想을 질기며, 이튿날아침 仇甫는 이내 女子를 찾았다.

牛込區矢來町 **【註2】**。주인집은 그의 新潮社 **【註2】** 근처에 있었다。人品 좋은 主人여편네가 나왔다 들어간뒤、玄關에 나온 노오트主人은 分明히…

【註2】 牛込區矢來町 / 新潮社

우시고메(牛込) 구 야라이초(矢來町)는 구보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조선인 여학생의 숙소가 있는 곳인데, 근처에 신초샤(新潮社)가 있다고 한다. 신초샤는 문예서적의 일류 출판사인데 지금도 같은 곳에 본사가 있다. <半年間>에서는 소설 <女給>을 쓴 작가로 언급된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 생가가 야라이초 신초샤 뒤에 있었다.

【원문 발췌 (3) p.280】

…仇甫가 노오트를 내어놓고, 自己의 失禮에 가까운 尋訪에 對한 辯解를 하였을 때、女子는、瞬間에、얼굴이 붉어졌었다。모르는 男子에게 鄭重한 人事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까다。어제 어디갔었니。吉屋信子 **【註3】**。仇甫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고、女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註3】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는 여성 작가이다. 1916년부터 잡지 『少女畫報(소녀화보)』에 연재한 <花物語(꽃이야기)>로 인기를 얻게 되고, 그것이 ‘소녀소설’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에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 체험을 밝히기도 했다. 1930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도 많았기 때문에 박태원도 요시야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문 발췌 (4) pp.280-281】

…分明히 自己를 믿고 있는듯 싶은 女子態度에 仇甫는 自信을 갖고、참、이번 週日에

武藏野館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함께 그러한 자신이 할일없는 不良少年【註4】 같이 생각되고、또 萬若 女子가 그렇게도 쉽사리 그의 誘引에 빠진다면、그것은 아무리 通俗小説이라도 讀者는 應當 作者를 信用하지 않을꺼라고 속으로 승거옴게 웃었다.

【註4】不良少年

『新版大東京案内』에는 “도쿄 생활 백태(東京生活百態)” 중 “번화가를 본거지로 하는 불량배”로 “不良少年少女” 를 거론했으며 연파(軟派) 불량배들이 여학생을 유혹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다(하, 162~166 쪽).

【원문 발취 (5) p.281】

女子는 聰明하였다. 그들이 武藏野館【註5】 앞에서 自動車를 내렸을 때、그러나 仇甫는 暫時 그곳에 우뚝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뒤에서 나리는 女子를 기다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그의 앞에 外國婦人이 빙그레 웃으며 서있었던 까닭이다. 仇甫의 英語教師

【註5】 는 男女를 번갈아보고、새로이 意味深長한 웃음을 웃고 오늘 幸福을 비오、그리고 체질을 걸었다. 그것에는 或은 三十 獨身女의 젊은 男女에게 對한 빈정거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註5】武藏野館 / 仇甫의 英語教師

『조선중앙일보』 연재 지면에는 무사시노칸을 그린 삽화가 있다. 그것은 MUSASHINOKWAN 이란 로마자로 장식된 3층 빌딩 외관 옆에 서 있는 구보의 동행자인 여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화가는 ‘하용(河戎)’, 즉 이상이었는데 그는 그 때까지만 해도 도쿄에 가본 적이 없었을 터이다. 그는 박태원을 통해서 『新版大東京案内』에 실린 무사시노칸 사진을 보고 삽화를 그린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동아일보』 연재 27 회에 박태원 자신이 그린 삽화에 나온 무사시노칸 외관이야말로 이상이 흉내냈던 원화(原畵)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新版大東京案内』(상, 267 쪽)에 실린 사진 <고급 팬들이 모이는 영화의 전당 무사시노칸> 은 박태원이나 이상이 그린 삽화와 그 구도가 똑같은데다가 건물 윗부분에 로마자까지 똑같이 보인다.

【부록 7 사진과 삽화 참조】

그런데 무사시노칸 앞에서 ‘구보의 영어 교사’가 구보와 여자 커플을 목격해서 구보를 당황시켰다. 그런 도쿄에서의 추억의 ‘회상’을 서울에서 설렁탕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현실’에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박태원이 시도한 새로운 소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발췌 (6) pp.282-284】

…이슬비 나리던 어느날 저녁 히비야(日比谷)公園 **【註 6】** 앞에서의 女子를 仇甫는 애닦다、생각한다。

(中略)

비나리는 公園 **【註 6】** 안을 그들은 생각에 잠겨、생각에 울어、날 저무는줄도 모르고 헤매돌았다。

(中略)

또다시 너무나 가엾은 女子의 뒷모양이 보였다. 레인코트 우에 빗물은 흘러 나리고、雨傘도없이 帽子안쓴 머리가 비에젖어 애닦다. 기운없이、기운있을수 없이、축늘어진 두어깨. 주머니에 두팔을 꽂고、고개숙여 내어드디는 한걸음、또 한걸음、그 조고마코 弱한발에 아무러한 自信도 없다. 뒤따라 그에게로 달려가야 옳았다. 달려들어 그의 조고만어깨를 으스러지라 잡고、이제까지한 나의 말은 모다 거짓이었다고、나는 決코 이 사랑을 斷念할수 없노라고、이 사랑을 爲하여는 모든 障礙와싸와 가자고、그렇게 말하고、그리고 이슬비 나리는 東京거리에 두 사람은 無限한 感激에 울었어야만 옳았다。

【註 6】 히비야(日比谷)公園 / 비나리는 公園

히비야 공원은 구보가 애인과 헤어진 곳이다. 『조선중앙일보』 연재 때 이상의 삽화에는 비를 맞은 구보와 여자의 모습(21 회), 그리고 구보의 옆얼굴 너머로 비 내리는 공원을 떠나는 여자의 뒷모습(22 회)이 그려져 있다. **【부록 8 참조】** 히비야 공원의 사진으로는 『新版大東京案内』(상, 98 쪽)에 “히비야공원 중앙화단의 구식미(歐式美)”라는 한 장이 있을 뿐이다. 다만 “유람의 도쿄”(상, 316)를 보면 ““유람의 공원”이라면 우에노, 아사쿠사, 히비야라는 게 일반적인 설이다. …… 근대적인 정원이라면 히비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기술이 있다.